


# 문화의 뜰



##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 김 승 기

당신이 지나고 있네  
풀잎을 밟으시면 풀잎 소리로  
대밭을 밟으시면 댓잎 소리로  
저기 당신이 지나고 있네  
그 언젠가 당신이 나를 지나가실 때  
으스스하게 당신을 껴안았더니  
너무나도 어지럽던 그 밤  
끝내 긴 울음으로 당신을 배워  
당신이, 내 여름을 지나가시면  
까끌까끌한 벗잎 소리로  
내 가을을 지나가시면  
누런 별판의 그 술렁거림으로  
눈 감고 가만히  
당신이 지나가시는 소리  
오늘은 내 창 흔들여 지나가시기에  
온 등(燈) 밝혀 가난한 밤을 맞으니  
내 가슴, 당신 지나가는 소리  
당신 가슴, 내 지나가는 소리



## 시인 김승기

1960년 경기 화성 출생, 2003년 《리토피아》로 등단,  
신경정신과 전문의.

- 시 집 : 『어떤 우울감의 정체』,  
『세상은 내게 꼭 한 모금씩 모자란다』,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驛』
- 산문집 : 『어른들의 사춘기』

01



# Contents

문화의 들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소식지로  
화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일 \_ 2017. 6. 30

발행처 \_ 화성문화원(www.hscc.or.kr 1859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전 화 \_ 031-353-6330

발행인 \_ 고정석

편집인 \_ 편집위원회(한상업, 김기훈, 정찬모, 김용원, 이경열, 이덕규, 임철빈)

표지 제호 \_ 정은기

디자인 \_ 마실팜투 031-223-1880

표지사진 \_ 김기훈

24



30



28



39



40



53



---

## 01 권두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 김승기

---

## 04 문화원장칼럼

문화칼럼 | 고정석

---

## 06 이야기하다

역사

7세기 초 삼국의 당항성

쟁탈 양상에 관한 고찰(上) | 김용원

문화재

지명에 많이 쓰이는

‘한’의 여러 가지 뜻의 탐구 | 정찬모

걸출한 장수의 한(恨)이 문헌

남이 장군(南怡將軍) 묘 | 서석봉

---

## 20 마을의 발견

문화자원이 풍부한 마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白谷里) | 류순자

---

## 28 영상수필

국화도 | 황금모

---

---

## 30 화성사람들

작가초대석 | 이향지

인물

외롭고 불우한 선비의

시작(詩作)을 통한 자기극복 | 이경렬

출향인사

그리운 고향의 추억 | 류덕희

우리동네 사람들

원어민교사의 하루 | Dini Turner

---

## 42 수필

화해 | 이종숙

정조의 야망, 화성을 다시 본다 | 공화순

---

## 49 함께하다

향토문화연구소 활동소식 | 임철빈

문화원 활동소식 | 사무국

---

## 섬세한 지혜가 만들어 놓은 과학



화성문화원  
원장 고정석

가뭄으로 인해 목말라하는 농민들의 심신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모내기를 서둘러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졌고 그나마 모내기를 끝낸 논에도 물이 부족해서 논바닥이 타들어가고 있다. 밭작물도 오랜 가뭄으로 생육발달이 어려우니 농부의 마음도 가뭄만큼이나 타들어가는 날들이다.

어린 시절 뚝 너머에 둠병(물웅덩이)을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동네 어르신들은 논에서 일을 하시고 둠병에서 등목을 하거나 목욕을 하시던 것을 보았다. 둠병물은 차가워서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고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았던 샘물이었다.

물론 그 물로 논에 물을 대었기에 가을 풍작은 걱정이 없었다.

이제는 그런 둠병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지만 선조들의 지혜가 물씬 담겨있는 둠병의 위치라도 파악해서 보전할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뿐이다. 늘 마르지 않았던 물웅덩이는 현대 과학의 표본이었다. 또한 각 고을 동네마다 동네 한가운데 우물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어머니와 누이는 양동이에 길어가 음용수로 사용하거나 가용물로 온 동네가 사용했었다.

동네 우물물 또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우물가는 어머니들의 저작거리처럼 빨래를 하면

서 소통의 공간이었고 동네 대소사의 소상한 소식을 알게 되는 우체통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이 또한 동네마다 존재했던 우물터도 우리가 복원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유형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구한 유형의 유산 말고도 무형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소리, 민담, 전설 또한 무한한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다. 선조의 전래유산도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분들의 육성을 녹음하여 정리해 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형, 무형의 전래유산이야말로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할 화성시의 산역사가 아닌가 싶다.

세월은 유구하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에 남겨줄 유산은 선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할 일에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거슬릴 수는 없나보다. 그래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며 슬기롭게 삶을 지탱하는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움의 미학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이 발달은 없었지만 찬란한 유형의 유산을 살펴보면 정교하고 세밀함이 기막힌 과학적임을 알 수가 있다. 과학적인 도구나 중장비 없이도 돌탑의 높이, 유

선형의 곡선 등 건축양식은 지금도 그것을 근본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입증하는 것이다.

돌계단 하나하나에 미학이 담겨있고 철학이 묻어있으며 선조들만의 독특한 독창성으로 창조해 놓았으니 그런 선조들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다.

화성시에 화성역사박물관이 있다. 선조들의 유형 재산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잘 보존해둔다면 훗날에 후세에게도 값진 문화적인 유형유산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유물로 남을 것이다.

수년 전에 사용했던 다듬잇돌, 절구통, 사기요강 등 흔히 사용했던 가정의 일상용품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어느새 골동품이 되어버린 실정이니 불과 수십 년 전에 즐겨 사용했던 물품들 아니던가.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유형의 문화재산으로 남기 마련이다. 문화적인 가치를 향유하는 방법도 과학의 섬세함에 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분의 선한 뜻으로 세차게 비를 듬뿍 내려주시어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했으면 한다.

# 7세기 초 삼국의 당항성 쟁탈 양상에 관한 고찰(上)

김 용 원 (시인,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1. '방랑의 마음' 으로 오르는 옛 성터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魂) ….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에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 보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

옛 성(城) 위에 발돋움하고  
돌 너머 산(山) 너머 보이는 듯 마는 듯  
어릿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

바다를 마음에 불러일으켜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깊은 바닷소리  
나의 피의 조류(潮流)를 통하여 오도다.

망망(茫茫)한 푸른 해원(海原)—  
마음 눈에 퍼서 열리는 때에  
안개 같은 바다의 향기(香氣)  
코에서 서리도다.

— 방랑의 마음, 오상순

7세기 무렵 백제 고구려 신라는 당항성을 놓고 박 터지게 싸웠다. 수천 군사가 죽고, 수백 장수가 죽고, 어느 때엔 군왕까지 죽어나가야 했다. 왜? 왜! 왜…… 14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무심한 파도는 저 멀리서 철석거리고 유정한 바람은 등 뒤에서 살랑거리고 있다. 무명의 향토사학자이지만 참혹한 역사의 혈전장을 그냥 지나침은 도리가 아니라. 열정 페이지 아니라도 돌아봄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역사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에게 돌직구를 던지고 싶다. 삼국에게 있어서 당항성이 무엇이었고, 한강보다도 더 소중하였느냐고.

신흥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불현듯 공초(空超)의 시 <방랑의 마음>이 떠올라 나직히 읊조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문단의 4대 기인으로 수주(樹州)와 더불어 폐허 동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평생을 입산과 환속을 거듭하는 무애(無碍)와 독신 참선 깃연 방랑의 삶으로 화제를 뿌렸다.

방랑의 마음으로 전국을 떠돌며 일제 강점기 치하의 삶을 허무와 세속에의 일탈로 영위하려 했던 공초, 그가 1920년대의 어느 봄날 화성의 흐너진 옛 성터에 올라,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놓지 못하는 담배를 물고서 종일토록 바다를 조망한 후 돌아가 신계사 골방에서 썼다는 시, 식민지 현실에 대한 허무와 절망이 영원한 이상세계로서 바다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녹아 작품 속에 면면히 흐름을 알 수 있다. 나는 그가 올랐던 옛 성터가 당항성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역사의 현장으로 향하였다.

## 2. 성(城) 중의 성(城) 화성(華城), 화성의 꽃 당항성



- |          |          |           |          |
|----------|----------|-----------|----------|
| 1. 수원고읍성 | 2. 태봉산성  | 3. 남양리성   | 4. 남양장성  |
| 5. 삼존리성  | 6. 화랑진성  | 7. 성목쟁이성  | 8. 백곡리성  |
| 9. 당성    | 10. 청명산성 | 11. 영종포성  | 12. 석산성  |
| 13. 용두리성 | 14. 오두산성 | 15. 길성리토성 | 16. 한각리성 |
| 17. 운평리성 | 18. 사창리성 | 19. 소근산성  | 20. 창고산성 |

화성시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20여 개의 산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화성이 정치군사적 요처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화성이 결국 삼국의 혈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시사한다. 화성의 산성들 중 하나인 '당성(唐城)'은 서신 송산 마도 3개 면의 경계선이 교차되는 중심부 가까이 위치한 구봉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높이는 약 2.5m, 하단부의 폭은 7~8m, 둘레는 약 1200m 인데,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1993년부터 성곽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백제 후기의 전형적 축성방식을 보이고 있어, 처음에는 백제가 축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구려가 축조한 성으로 신라가 점유한 후에는 당항성이라 하여 중국과의 교역의 관문이었

으며, 신라 말기에는 이곳에 당성진을 설치하여 강화의 혈구진, 완도의 청해진과 더불어 신라 해군의 근거지로 중요시되었던 곳이다.

화성의 시원(始原)은 문헌상 삼한시대로 추정한다. 삼한 중 마한(馬韓)은 약 54개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 모수국(牟水國)은 지금의 태안 봉담 매송 향남 양감 정남 동탄 일대에, 상외국(桑外國)은 지금의 우정 장안면 일대에 그리고 원양국(爰襄國)은 지금의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면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이 중 모수국과 상외국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에 편입되면서 매홀군(買忽郡)으로 불리게 되었고, 원양국은 먼저 백제로 편입되어 당항성(唐項城)이 되었다가 후에 다시 고구려로 재편입되면서 당성군(唐城郡)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16년(757)에 전국의 행정구역(州)을 9주(州)로 통합하였다. 이때 매홀군은 한주(韓州)에 속하게 되면서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면서 그 아래 차성(車城) 영풍(永豐) 진위(振威) 광덕(廣德) 등 4개 현을 두었으며, 당성군은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되면서 쌍부(雙阜) 정송(貞松) 안양(安陽) 등 3개현을 관할하였다. 그후 헌덕왕 14년(822)에 이르러 당은군은 현으로 격하되면서 이듬해 수성군으로 병합되었다. 그러나 흥덕왕 4년(829)에 다시 분리 되어 당성진(唐城鎭)이 되었다.

당항성은 1971년 사적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테피형(山頂式)과 포곡형(包谷形)을 결합한 복합식으로, 현재 동문·남문·북문의 터와 우물터, 건물지가 남아 있다. 백제시대에 테피형 산성이 축조된 후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백제의 영향을 받아 복합형 산성으로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3. 당나라로 가는 포구.

#### 해문리(海門里)와 원효의 오도처.

#### 백곡리(白谷里)

당항성은 글자 그대로 당나라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553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대중국 외교를 추진한 거점이 되었다. 당항성은 6세기 중반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10세기까지 약 400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무역항이었는데, 진흥왕이 정복하기 이전에도 백제나 고구려가 현재의 화성지역을 점령하면서 항구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당성이 삼국시대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백제의 당항성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당성이 당항성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도에 당나라 당자가 새겨진 기와에 이어 백제토기 등 유구와 유물 1천여 점이 추가로 출토됐기 때문이다.

“당나라 당자가 찍힌 기와와 함께 이번 발굴에서는 5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백제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성이 역사 기록상에 있는 당항성일 가능성이 큼니다.(배기동, 한양대 교수)”

신라가 성 축조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기와와 중국의 백자완도 함께 출토됐다. 이에 따라 당성은 백제가 축조하고 신라에 의해 확장된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서기 661년 한여름, 두 명의 젊은 승려가 해문리에 나타난다. 이들이 훗날 이 나라 불교계의 대표적인 거성이 되리라는 것은 본인들도 몰랐을 것이다.

645년, 당나라의 현장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자은사 머물며 신역 경론을 번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삼장법사로 더 유명한 고승. 하나도 어렵거늘 경륜논 삼장에 모두 통달한 그를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의 희망사항이었다.

현장의 신역 번역을 직접 구해 보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기에, 의상은 원효를 찾아가 같이 가자고 하였다. 원효의 귀가 번쩍 뜨였다. 불감청이면 고소원. 당장 떠나. 우리 떠나. 650년. 그저 빨리만 가고 싶은 마음에 내땅인지 남땅인지도 가리지 않고, 고구려 영토를 가로질러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다가 변방의 순라군에게 붙들렸다. 수십 일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석방되어 신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목이 잘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 그때의 쓰라림이란, 시절인연이 닿지 못하였구나. 어쩔 수 없이 팔공산에 틀어박혀 10여 년을 불철주야 수도하였지만 깨달음은 쉬 찾아오지 않았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나라 유학의 꿈을 접을 수는 없었다. 원효 나이 44세, 의상은 36세.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늦출 수 없었다. 이십전심으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나라로 떠나는 것에 둘은 의기투합하였다. 자, 떠나자 서해의 포구로. 1차 유학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하였다. 서해의 포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경주-선산-상주-함창-문경-연풍-충주-죽산/여주-당은포로 이어지는 700여 리 계림령로를 40여 일 동안 걸어들어 이곳 해문리에 도착한 것이다. 현장이 있는 현장으로 기필코 가리라.

이 대목을 송나라 승려 찬영(贊寧, 912~1002)은

《宋高僧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行至本國海門唐州界

이 짧은 한 구절, 9자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여 원효의 오도처(悟道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국 신라의 항구이자 당나라로 나아가는 경계에 도착했다' 라고 대부분 풀이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려 깊지 않은 해석이다. 즉 해문(海門)을 단순히 보통명사로 보니, 바다의 관문(=항구)이라고 풀이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서해안의 항구나 포구를 가진 시군 관계자들이 해문이 자기 지역이라고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원효의 오도처는 분명 한 곳일진대, 당진의 무슨 절, 평택의 어느 절 식으로 여러 장소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해문의 위치가 비정되면 단번에 무너질 사상누각인 것이다. 최근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정찬모 소장은 '해문'을 보통명사로 보지 말고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여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라는 마을이 바로 본국 해문을 말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본국의 해문(리)인 당은포의 경계에 도착했다.'로 해석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해문리는 17세기 지도에도 표시되는 지명이며 조선 명종~선조 때의 문신이며 학자인 홍성민(洪聖民)의 시문집인 <졸옹집 拙翁集> 10권에 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에서 남양부가 당은군, **당주**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南陽鄉貫誌(남양향관지)南陽府(남양부).

稽古要覽曰(계고요람왈).

府古號唐恩郡(부고호당은군).

又稱唐州(우칭당주).

또한 그 유명한 원효의 해골물 일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고분백골이 백골리의 고분군이라고 유추된다. 실제로 백골리 고분과 당성은 1600m 정도의 거리이며, 해문리와 당성은 2600m의 거리에 불과하고, 백골리 고분은 그 형태와 시기가 해골물 일화의 무덤과 흡사하다고 보인다.



당성 해문리 백골리간 거리



발굴된 백골리의 백제고분



17세기 후반 제작된 동여비고 속 수원지방도에 나타난 해문리



고지도의 흔적과 현재 지형을 살펴보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항구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해문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폭우로 인하여 둘은 바로 출항하지 못하고 백골리>백골리의 토굴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만다. 수백 리 길을 걸어 온 원효가 피곤에 겨워 잠결에 목말라 마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해골물, 이것이 원효와 의상의 운명을 갈랐다. 득도성불의 길을 갈랐고, 입당유학의 길을 갈랐고, 종파창시의 길을 갈랐다. 원효는 직관을, 의상은 통찰을 중시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두 사

람이 걷는 길은 달랐으나, 가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다. 다음 날, 의상은 배에 오르고 원효는 송대에 올라 떠나가는 배를 보고 손을 흔들며 주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염불을 하며 산을 넘으니 후인들은 이 산을 염불산이라 불렀다.

## 백제 고분과 당성 주위의 불교지명

원효대사가 득도한 당성 주위의 지명을 보면 당성의 서남쪽에는 염불산(念佛山)이 있고 그 사이에 바리고개가 있으며, 동쪽으로 인접한 곳에 금당리(錦堂里, 金堂-부처님 모신 불전)가 있다. 원효대사가 태어난 경산시 자인면 언덕에 금당터가 있으며 또한 화성시 송산면에는 삼존리(三尊里)가 있는데, 이 삼존(三尊)은 불교 용어로서 본존불(本尊佛)과 좌우에서 시립하는 보처불보살(補處佛菩薩)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우리나라의 사찰 전각 안에는 대부분 주불(主佛)이 좌우보처를 거느린 삼존불의 형태로 봉안되어 있다.

석가모니를 본존불로 모신 대웅전에는 일반적으로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된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와 만행(萬行:수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석가모니의 지혜와 권능을 보좌하는 것이다.

송정리(松亭里)에는 토속 지명으로 법동(法洞)이 있으며, 이 법동은 법당에서 내려온 지명이며 법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종파는 선종이다. 마을 입구에서 보면 주위 산세가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연꽃 '하(荷)' 자를 써 '하일(荷日)' 마을도 있으며,

이웃 슬항리(瑟項里)에 큰절이 있었으나,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져, 그 뒤 '절골' 이라고 불리어졌다고 전하는 지명도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가 융성한 지역으로 보여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산천조에 보면 '사나산(舍那山)이 부 동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사나(舍那)'는 비로사나(毗盧舍那)의 약자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칭호이다.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에 있는 사나산에는 사나사(舍那寺)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전한다. 인접한 비봉면 양노리에는 마을앞 개천에서 나온 미륵불을 모셔 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미륵골(彌勒洞)과 불계골(佛界洞), 바리골의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목은 이색(1328~1396)이 지은 남양부 망해루기(南陽府 望海樓記)에 보면 "남양부(南陽府)는 대체로 산천이 신령스럽고 이상한 정기가 한데 뭉쳐서 상서로운 기상을 이루어 억만년 끝이 없는 왕업의 기초를 이루었다. 진실로 다른 균현과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그곳 수령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한 반드시 조심하여 뽑아 쓴다. 남양부 계고요람(稽古要覽)에 말하기를 부(府)는 옛 이름을 당은군(唐恩郡)이라 하고 또 당주(唐州)라고도 일컬었다고 쓰여 있다. 지금의 화성시는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연관이 있는 불교와 연관되는 지명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의 성지임이 확실하다.

(다음호에 계속)

## 지명에 많이 쓰이는 **‘한’** 의 여러 가지 뜻의 탐구

정 찬 모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오늘날 한글 이름들을 보면 ‘한’이 들어간 것이 매우 많다. ‘한샘’, ‘한솔’, ‘한터’, ‘한누리’, 같이 ‘한’을 앞글자로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람 이름에만 ‘한’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상호나 상품 이름에도 이 글자가 많다. ‘한가람’, ‘한길’, ‘한밭’, ‘한빛’, ‘한누리’, ‘한나래’ 등.

‘한’은 대개 명사 앞에 붙어서 좋은 뜻을 보태 준다. 그 뜻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갈라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큰’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큰 길’을 뜻하는 ‘한길’이 있고, 큰 숨을 뜻하는 ‘한숨’이 있다.

‘한가위’는 ‘한’과 ‘가위’가 합쳐 이루어진 말이다. ‘가위’는 ‘중심’(날짜의 의미로는 ‘보름’)의 뜻을 가진 말이니 한가위는 ‘큰 보름’의 뜻을 지닌 말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많은’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홍수의 뜻

인 ‘한물’이 있고, 장마의 뜻인 ‘한비’가 있다.

셋째로, ‘넓은’의 뜻이 있다. 그래서, ‘넓은 밭’, ‘넓은 내’의 뜻으로 붙여진 ‘한밭’, ‘한내’ 등의 땅 이름이 있다.

넷째로, ‘바른’ 또는 ‘가운데’의 뜻을 갖는다. 그런 뜻이 들어간 것 중에는 ‘한밤중’, ‘한낮’, ‘한겨울’, ‘한복판’ 등이 있다.

다섯째로, ‘가장 심한’의 뜻을 갖는다. ‘한더위’, ‘한추위’, ‘한사리’ 등에서 ‘한’은 바로 그러한 뜻이다. ‘한사리’는 매달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에 조수(潮水)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를 가리키는데, 한자로는 ‘대기(大起)’라고도 한다.

여섯째로, ‘오랜’의 뜻을 갖는다. ‘한잠’, ‘한참’, ‘한동안’ 등이 이를 말해 준다.

일곱째로, ‘위’ 또는 ‘높음’의 뜻을 갖는다. 그래서, ‘한아버(祖)’, ‘한어미(祖母)’ 등의 옛말이 있다.

지금의 ‘할머니’가 ‘한어머니’로 표기된 옛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의 어형이 이루어진 것은 ‘어미’가 ‘어머니’로 어형을 갖추에 따라 ‘할미’가 ‘할머니’로 바뀌지는 어형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할’은 ‘한’이 변한 것으로서 이것은 ‘크다’ 또는 ‘높다’의 뜻을 가진 것이었다.

경북 영덕 지방에선 할머니를 ‘크너메(큰어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과 ‘큰’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도교에서 조물주인 최고의 신을 ‘한울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대종교에서 우리 겨레의 시조인 단군을 높여 ‘한배검’, ‘한얼님’으로 부르는 것도 ‘한’이 ‘높음’ 또는 ‘하늘’(하느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이란 말은 좋은 뜻을 모두 챙겨 가진 말인 셈이다. 그런데, 위 여러 가지 뜻을 하나로 집약하면 ‘큰’이라 할 수 있다. 많거나 넓은 것도 엄밀히 생각하면 큰 것이고 ‘바른’이나 ‘심한’, ‘오랜’, ‘높은’ 등도 넓은 의미로는 ‘큰(大)’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크다’나 ‘넓다’는 뜻의 이 ‘한’은 땅이름에 무척 많이 들어가 있다.

한자로 앞음절이 대(大), 한(閑, 汗, 漢), 황(黃) 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이러한 ‘한’자 토박이 땅이름이 많다.

골짜기 또는 그 곳에 위치한 마을 중에는 ‘한실’이라고 붙여진 땅이름이 무척 많다. 대개 한자로 대곡(大谷)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지명만 해도 경북 영일

군 지행면, 영덕군 축산면, 경남 합천군 쌍백면, 창녕군 대합면과 남지면, 전남 화순군 도곡면, 승주군 송광면 등 40여개 가까이 된다.

‘한실’과 비슷한 땅이름에 ‘한골’이 있다. 한자로 대리(大里), 대동(大洞), 한곡(閑谷) 등이 되어서 경북 영해면, 전남 화순군 화순읍, 강원 춘천시 북산면, 경북 경산군 외촌면,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산면 등에 있다.

‘한골’은 ‘항골’ 또는 ‘황골’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성동구 광장동, 인천 북구 일신동, 김포시 검단동 등에 그런 이름의 마을들이 있는데, 한자로 하는 항동(航洞), 대곡(大谷), 대동(大洞), 황곡(凰谷, 黃谷), 항곡(恒谷) 등의 한자로 표기되기도 한다.

‘한골’이 ‘황골’로 변하는 과정은 지금의 말에 ‘황새’와 ‘황소’가 있음으로서 그 이해가 쉬어진다.

- 한소 > 항소 > 황소 (조선어사전 965쪽)
- 한새 > 항새 > 황새 (조선어사전 965쪽)

터가 넓으면 ‘한터’가 된다. 이 이름은 한자로 대기(大基), 대대(大臺), 한기(汗基) 등으로 되어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명주군 왕상면, 고성군 거진읍, 경남 함양군 안의면, 창령군 유어면, 거창군 용양면 등 여러 곳에 있다.

산이 높다고 해서 붙은 이름은 ‘한뫼’, ‘한묘’인데 전남 해남군 옥천면, 충남 금산군 제원면 등에서 대산(大山)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한산리(閑山里)는 ‘한뫼’와 같은 뜻인 ‘한미’이다.

고개의 이름인 ‘자’는 ‘재(山城峴)’의 옛말이다. 대치(大峙)는 큰 고개가 있는 곳의 땅이름이다. 그 토박이 땅이름은 ‘한티’인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해서 충남 청양군 대치(代置)면, 예산군 덕산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등에 이 이름이 있다.

‘한티’나 ‘한재’는 대현(大峴)이라는 한자식 땅이름을 얻기도 했다. 경남 합천군 쌍백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오부면 등의 대현리(大峴里)가 그 예이다.

산(山)이란 뜻의 옛말 ‘밭’이 ‘한’과 어울려 ‘박’으로 변하면서 ‘한박실’, ‘한박골’이 된 곳도 있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대박리(大朴里), 경북 모서면 대표리(大杓里) 등이 그것이다.

‘내’가 길거나 넓으면 ‘한내’이다. 이 이름은 한자로 대천(大川)이라고 주로 표기된다. 이렇게 표기되는 곳이 충남 대천시, 예산군 고덕면, 보령시 웅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천군 화남면 등의 대천동이나 대천리이다. ‘한내’가 그대로 취음되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경남 거제시 연초면 등에 한내리(汗乃里, 汗內里)가 있다.

한강의 북쪽 지류 중랑천도 ‘한내’로 그 한자표기는 한천(漢川)이다. 한강의 ‘한’도 ‘큰’의 뜻을 담고 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내’ 마을은 한천리(閑川里)란 이름을 달았다.

‘한내’와 비슷한 이름에 ‘한여울’이 있다. 임진강의 한 지류인 한탄강도 한여울이다. 한탄(漢灘)은 바로 ‘한여울’의 한자식 표기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는 체천(砌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쪽으로 흘러 양주 북쪽으로 들어가 대탄(大灘)이 된다.’고 적어 놓고 있다.

‘한여울’이란 이름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의 한탄리(漢灘里) 등 여러 곳에 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대탄리(大灘里)도 큰 여울의 뜻인데, 그 토박이 땅이름은 ‘해여울’이다.

큰 나루라는 뜻은 ‘한나루’, ‘한나리’ 등의 이름이 붙었다.

강원도 동해시의 대진동(大津洞), 전남 해남군 산이면, 경북 영덕군 영해면 등의 대진리(大津里)가 바로 그 경우이다. 충남 당진시 송악면 북단에 있는 ‘한나루(漢津里)’도 그 맞은편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쪽으로 건너가는 큰 나루가 있어 붙은 마을이름이다.

넓은 밭의 이름은 ‘한밭’이란 이름이 붙는다.

‘한밭’이라고 하면 우선 대전(大田)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한밭’으로 불리었다가 ‘대전’으로 된 곳은 무척 많다. 강원도 강릉시와 경북 영천시에 있는 대전동(大田洞)을 비롯해서 경남 합천군 가야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단양군 어상천면, 제천시 수산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등에 대전리가 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흘러 대전리를 지나 덕평리에서 달내(達川)로 들어가는 내 이름은 ‘한밭들’, ‘한밭’으로 불리던 곳이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벌리(閑筏里), 화성시 우정

읍의 한각리(閑角里)는 각각 '한벌', '한불'이 원 이름이다. 한각(閑角)은 큰 벌이란 뜻의 '한벌'이 '한불'이 되고 이것이 다시 '한부리', '한뿌리'로 되면서 한자로 취해진 이름이다.

'한들'이란 이름은 큰 들판의 마을에 많은데, 이런 마을들은 대개 대평(大坪)이란 한자이름을 달고 있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진양군 대평읍, 합천군 초계면, 경북 영풍군 안정면 등의 대평리(大坪里)는 모두 '한들'이란 이름이 그 바탕이다.

큰 들이 바닷가에 있으면 '개'자가 들어간 땅이름이 붙는다. 그래서 큰 개펄이란 뜻의 '한개'가 되는데,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의 '한개', 김포시 양촌면의 '황개',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행개' 등이 다 같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모두 다 대포리(大浦里)란 행정지명으로 되어 있다. '황개', '행개'는 똑같이 '한개'의 사투리 지명이다.

- 한개 > 항개 > 황개
- 한개 > 항개 > 행개

'한들'은 지방에 따라 '한뜰'로 불리는 곳이 있다. 지금의 제천시 청풍면의 황석리(黃石里)도 '한뜰'인데, 여기서는 '뜰'이 '뜰'로 병해서 한자지명으로 '석(石)'자가 취해졌다.

- 한들 > 한뜰 > 한뜰 > 황뜰(黃石)

'한'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큰'을 뜻하기도 하고 '높음', '가운데', '많음', '넓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로 집약해보면 '큰'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지명유래집 - 건설부국립지리원
- 한국지명유람 - 건설부국립지리원
- 한국지명유래집 - 진한 M&B
- 우리땅이름의뿌리를찾아서 - 배우리
- 신증동국여지승람 - 고전국역총서
- 한국어어원연구 - 이남덕
- 우리말어원연구 - 최창렬



## 남이 장군(南怡將軍) 묘 〈경기도 기념물 제13호〉

서 석 봉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름하여 “南怡將軍 豪征詩” 또는 “北征歌”로 알려진 기개 넘치는 이 시시로 인해 조선의 대표적 무인이 될 수 있었던 한 인물은 억울하게 죽고 만다.

이 시의 3연 『남아이십미평국(未平國)』을 『남아이십

白頭山石摩刀盡  
頭滿江水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惟稱大丈夫

백두산 석 칼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물 말 먹여 다 없애니  
남아 스물에 나라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

미득국(未得國)』으로 바뀌, 당시 훈구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유자광이 모함하고 이에 예종과 한명회, 신숙주, 등의 질시로 역모라는 누명으로 능지처사되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

리의 야산에 묻혀 세월과 권력의 허망함을, 인간 욕망의 부질없음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 〈南怡는 누구인가〉

남이(1441~1468)의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할아버지는 태종의 부마인 의산군 남휘(南暉)이고 어머니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貞善公主)이다. 정선공주는 남이의 아버지인 남빈(南份)을 낳았는데 21세에 일찍 사망하였다. 태종과 오빠인 세종대왕이 무척 사랑했는데 그녀가 일찍 죽자 세종은 무척 슬퍼하였다고 한다.

남이는 태종의 외증손이며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명문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연고로 1457년(세조 3) 17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무직을 역임했다.

이시애의 난(1467)이 일어나자 출진하여 용맹을 떨쳐 진압하여 적개공신 1등에 봉해진 후, 여진(女眞)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할 때에도 선봉으로 적을 무찔러 이등군공에 올랐으며, 그 뒤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468년에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했으며, 이어 26세에 병조판서에 발탁됐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하면서 신숙주·한명회 등에 의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등장한 신진세력이 제거될 때 형조판서 강희맹(姜希孟)이 지중추부사 한계희(韓繼禧)에게 남이의 사람됨이 군사를 장악하기에는 마



▲ 남이장군묘 표석. 비봉에서 유포리를 거쳐 수화리로 가다보면 길가에 서있다.

땅치 않다고 말한 것을, 한계희가 예종에게 아뢰므로 써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물러났다.

## 〈남이는 어떻게 모함으로 죽게 되었는가〉

예종이 세자일 때부터 크게 믿지 못했던 세조는 누나의 손자이며 능력이나 인물됨이 뛰어난 남이를 무척 총애하였다. 그래서인지 예종은 9살 형뻘인 남이의 인기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때마침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공신들은 크게 2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계유정난을 주도했던 정난공신(한명회, 신숙주, 등)과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며 등장한 적개공신(남이, 강순, 등)이었다. (계유정난의 명분이 약한 세조는 공신의 수를 크게 늘려 세력을 강화하고, 정난공신에 대한 견제책으로 귀성군 이준을 영의정으로, 남이를 병조판서로 임명하는 파격을 실행하였으나 세조가 바로 죽자 헛일이 되었다.)

정난공신과 적개공신은 서로 대립했다. 정난공신들은 남이 장군의 초고속 승진과 세조의 총애를 질시하며 노골적으로 남이를 견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개공신들은 한명회의 사위 예종이 왕으로 즉위하자 불안하게 되었다. 남이는 한명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심스레 병조참의로 있던 유자광을 포섭할 의도로 다가간다.

간신배 유자광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유자광의 할미가 의령 남씨이므로 친척으로 생각하고 혐의한 것이었으나, 유자광은 서얼로 태어나 핍박을 받으며 자란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러므로 남이의 제의에 동조하지 않았다.

남이가 궁궐 안에서 숙직을 하고 있던 중 혜성이 나타나자,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징조다.” 라고 말했는데, 병조참지 유자광(柳子光)이 엿듣게 된다. 처세와 시류의 흐름을 잘 아는 그는 정난공신의 편에 가담하게 되면서, 한명회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포섭하려 했다는 사실과 남

이가 말한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된다. 예종에게 ‘남이의 역모’로 고발을 한 것이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이의 과거를 들춰내어 앞에서 제시한 『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으로 바꿔, 역모를 꾀했다고 하니 정난공신들은 남이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고, 예종도 신진세력으로 커가는 남이를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책략에 적절히 이용하여 신속히 역모 사건으로 처리하였다.

## 〈남이 장군 묘가 화성에 있는 까닭은?〉

당시 능지처참(거열형)은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남이를 비롯하여 강순, 변영수, 조정치, 문효량 등 약 30명의 관련 인물들이 국문을 받고 거열형으로 처형됐으며, 그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였다.(남이의 모친 남양 홍씨는 처형되고 부인은 자결하였으며 딸은 한명회의 노비로 하사되었다.)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형으로써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거나 팔다리와 어깨·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찢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이와 같은 대역죄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시신 수습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묘를 만들 수가 없었다.

남이의 경우도 묘를 몰래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하여 가묘를 두어 본래의 묘에 대

한 훼손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이섬의 남이장군 묘도 가묘로 추정한다.

다만 남이의 묘가 집안의 경상도 의령의 선산에도 묻히지 못하고, 경기도 화성의 비봉면 남전리에 홀로 묻힌 것으로 보아 그의 시신 대신에 유품들을 모아 매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남이의 어머니가 남양 홍씨인 관계로, 남양 홍씨가 많이 사는 남양, 비봉, 등 화성 인근과 연관이 있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남이의 아우인 남초(南韶)의 후손에 의해 봉축되어 오다가 350년 후 1818년, 순조 때 이르러 남이의 후손 남공철의 상소에 의해 신원이 복권되었고, 또 150여년이 지난 1968년에 이르러 역시 남초의 후손에 의해 당시 화성군의 지원을 받아 묘비명을 건립하였다.

현재 묘역에는 장군과 부인이 합장되어 있고 봉분

은 2기이며, 봉분 아랫부분은 돌레석이 둘러져 있다. 묘 앞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과 망주석이 1쌍씩 있다.

화성의 남이 장군 묘는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남이섬에는 옛날부터 남이장군 묘라고 전해지는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이섬이라는 이름도 그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섬의 북쪽 남이나루 근처에 남이장군 묘라고 전해지는 돌무더기가 있었고, 이 돌을 옮기거나 집으로 가져가면 액운이 깎다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었다. 그러다 1965년 민병도 선생이 남이섬을 매입한 후 남이장군의 넋을 기리고자 현재 모습의 봉분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우면서 공식적으로 남이장군 묘라 칭하게 되었지만 가묘일 뿐이다.





##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마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白谷里)

류 순 자 (화성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1. 옛날에 옛날에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하러 나선다. 신라인들이 대당무역항로로 많이 이용하는 화성시 송산면 당성을 향해 먼 길을 온다. 해문당주계에 도착한다. 백곡리를 지난다. 조금만 더 가면 당성이다. 날은 저물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진다. 길이 너무 질어 푹푹 빠지니 앞으

로 나아갈 수 없다. 비를 피하며 쉴 곳을 찾다가 좁은 움막을 발견한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구부리고 잠이 든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찾는다. 마침 바가지에 물이 있어 빗물이겠거니 하고 별컹별컹 들이 마신다. 배도 고프니 참에 달게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깬 원효는 깜짝 놀란다. 이게 웬일? 잠을 잔 곳은 무덤이요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라. 그것을 보니 속이 우글우글하여 먹은 물을 다 토해내



〈다음 지도에서 발췌〉

고 싶어진다. 모르고 먹을 땐 그리 달터니만 어찌 이리 더럽다고 토악질을 해대는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분별은 모두 마음의 달려있구나 하고 크게 각성한다. 당나라 유학을 그만 두고 신라로 돌아가 서민들과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하층민들에게도 깨달음의 지혜를 전한다. J노믹스 서민정책의 선구자가 바로 1400년 전,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에서 깨달음을 얻어 실천한 원효 아닌가.

원효가 깨달음을 얻은 무덤은 어디일까? 성지순례로 한 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뵈다. 그래서 백제고분군이 발견된 백곡리가 본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이 글을 따라 함께 역사의 향기를 맡아보셔도 좋겠다.

## 2. 산과 산,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 백곡리

마도면 백곡리로 가는 길은 여러 방향으로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경로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에서 제부도 쪽으로 가는 길이다. 송산면 당성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코스코 밸리 아파트가 나온다. 이 아파트는 송산면 소재지고 아파트 오른쪽에 보이는 산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마도면 경계이고 백곡리 초입이다.

백곡리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동쪽으로 해문리, 동쪽으로 금당리, 남동쪽으로 고모리, 남서쪽으로 흥법리, 서쪽으로 상안리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주로 행기실봉우리자락으로 동서가

나뉘고, 청명산으로 남북이 갈라진다. 서쪽으로도 낮은 구릉들이 있어 백곡리 마을은 골짜기마다 산재되어 있다.

동네 어르신 이야기로는 지형이 섬과 같아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6.25 때도 피란민이 들어와 한 집에 스무 명씩 함께 기거하면서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이름을 들어보면 백화등 향기가 마을에 진동했다는 행기실, 고래골, 검산이 정미기, 후곡동, 도꾸리덩구골, 구리개, 구리개들, 정배기골, 부터골, 안골, 나리실골, 입피골, 입피굴, 앞골, 웃소고지, 소고지, 굴곡골, 독고리골, 관골 등 골짜기 ‘골’ 자가 유난히 많다. 또한 <화성시사Ⅱ - 3편 지명유래, pp. 762-763> 기록을 보면 “... 본래 남양군 마도면의 지역인데 마을을 둘러싼 청룡산 줄기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99개가 되어 1백 개에서 1개가 모자라 백(百)에서 한 획을 빼 흰 백(白)자를 써서 백곡리로 불렸다...” 고 할 정도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웅기 웅기 모여 살았던 모습이 선하다.

### 3. 땅이름으로 본 백곡리 유래

한국땅이름학회 정찬모(화성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선생님이 풀이한 백곡리의 이름 유래를 살펴보면, 양지 바른 골짜기의 뜻으로 ‘백(白)’은 ‘밝’의 음차이고 또 ‘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밝다’와 통하므로 많은

산과 마을에 이 이름들이 붙어 있다. 한자의 백(白)자는 날일(日)자에서 점하나 빠져 내려 그은 것으로 결국 백(白)자와 일(日)자는 태양에 바탕을 둔다면서 중국의 한족도 태양을 흰색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해가 많이 비추는 양지말의 지명과 같은 이름으로 향남읍의 백토리도 같은 뜻의 지명이다.

다리실은 ‘산(山)’이란 뜻의 ‘달’이 개음절화하여 ‘달’이 된다. 이 ‘달’에 ‘골(谷, 村)’이 붙어 ‘달골’이 되기도 하지만 ‘달’이 ‘다라’, ‘다리’, ‘다래’ 등으로 연철되어 ‘다릿골(다랏골, 다락골)’, ‘다리실’, ‘다래울’ 등의 산마을의 뜻으로 쓰인다.

구리개는 ‘골’이 ‘굴’이 되고 이것을 다시 ‘구리’, ‘구로’ 등으로 옮겨 간다. ‘구리’에서 ‘ㄱ’음이 없어진 것이 ‘울’, ‘우리’이다. 이 모두 ‘골’에서 온 것으로 골짜기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관골(冠谷)은 소고지의 맨 꼭대기에 있는 마을로 ‘소고지’ 너머가 해문리고 관골과 접경을 이룬다. ‘관’은 머리 위를 가리키는 말로 높은 지역의 마을이다.

향기실(행기실)은 한기실이 변한 말로 보인다. 넓고 늘어진 터에 생긴 마을에 쓰이는 이름으로 골이 크다는 뜻의 ‘한골’이 ‘항골’이나 ‘황골’이 되어 ‘황촌’이 되기도 한다.

소고지는 ‘고지’가 들어간 땅이름처럼 ‘곶’의 연철 지명인데, 이런 땅이름은 복잡한 해안선을 낀 동네임을 알 수 있다.

이태굴(이피굴, 입피굴, 입포굴)은 행기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배가 드나 들어서 배를 매는 표석이



▲ &lt;나리실골에서 남쪽으로 본 마을풍경&gt;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근처에 관골(冠谷)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의 뜻인 '관(冠)'이나 '입(笠)'을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독고리골이란 돌이 많은 지역에 많이 쓰이는 마을 이름이다.

#### 4. 백곡리 돌아보기

행기실(향기실)봉 서쪽 능선에서 골짜기 아래로 길게 늘어선 마을 백곡리.

시골지방의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 살고, 마을은 노인들이 지키고 있다. 자녀들의 도시생활을 돕느라 팔린 논밭 자리엔 공장들이 그득하다. 한산한 듯하면서도 오가는 차들이 마을의 정적을 깬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들어와 더러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낮엔 직장에 나가 마을 주민들과



▲ &lt;백곡2리 버스정류장에서 바라 본 청명산성&gt;

함께 어울릴 기회가 없단다. 농촌에서조차 이웃사촌이란 말이 사라질 위기다. 젊은이들이 없는 마을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백곡2리 어르신들은 계를 한다고 한다. 친목을 도모하고 연로하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란다. 30여 명이 한 달에 5만원씩 내는데 모인 돈을 두 명에게 계를 태워 준다. 깃돈을 타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3만원을 내도록 하여 그것을 다시 적금을 부어 노인회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생활 공동체로서 계는 오랜 옛날부터 집단결속, 친목유지, 사회보장적인 다양한 성격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집단에서 면면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마련하시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보고 전통과 관습이 오랜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시골마을 풍경과는 달리 행기실봉 중턱에는 그림처럼 예쁜 집들이 남쪽 능선을 따라 늘어서 있다. 산책 삼아 한 바퀴 돌다보니 아랫마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유럽 어느 휴향지에 온 듯 상큼하다.



## 5. 유득공과 이옥의

### 외할아버지 홍이석 묘소

구리개 마을 북쪽 산자락에 남양홍씨 홍시주의 묘(참의공파 17세)와 함께 홍이석의 묘를 볼 수 있다. 홍시주(洪時疇)는 조선4대 명문가인 남양 홍씨 토홍계 17세( 1626.09.03 -1707.11.24, 84세 )로 서기 1683년(57세 숙종9년)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바 있고 사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가의대부)홍시주는 이하. 이징. 이부. 이석. 이연 등 5남을 슬하에 두었다.



▲ <이옥, 유득공의 외조부 홍이석의 묘비 앞면>

이분의 넷째아드님이신 홍이석이 바로 조선 정조 시대 천재문인 이옥과 성균관 검서관으로 지낸 유득공의 외조부시다. 이옥은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매화동이 고향이고, 유득공은 여기 백곡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 6. 백곡리 토성(백곡리 산성)

마도면 백곡1리 행기실 마을에 위치한다. 별칭으로 머리피토성, 백곡리성, 향기실성, 성안성으로 불린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에 이르는 산성이다. 옛 문헌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접한 백곡리고분군과 연결되는 유적이거나 백곡리산성 북서쪽 2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당성과 관련 있는 보조성이라는 점이다.



▲ <백곡리 토성>



▲ 〈백곡리 토성 동문지 추정〉

성내에서는 문지 2개소가 확인된다. 동문지는 북동회절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오던 성벽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축조, 상단폭은 5미터, 하단폭은 1.4미터 내외이다. 서문지는 상면폭이 7-8미터, 하단폭이 1.8-2.4미터 정도이며 남측벽이 웅성형태로 돌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안쪽으로는 폭 10미터 정도의 평탄지가 조성되어있다. 서문지에서 남쪽으로 30미터 지점에는 성벽의 흙을 굴토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곳의 단면을 살펴보면 기저부에 다량의 기와가 적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집된 기와류는 선문 석문 어골문 복합문 등 통일신라 - 고려시대의 기와편이 대부분으로 이 성의 축조 연대를 말하여 주는 결정적인 단서라 할 수 있다.

백곡리 산성 동쪽 500미터 지점에는 백제시대 백곡리고분군, 서쪽으로 2킬로미터 지점에는 당성, 남쪽으로 1킬로미터 지점에는 청명산성이 자리한다.

〈2005년도 역사문화학교(화성문화원) 강의 2: 화성 지역의 성곽과 봉수/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p.41〉에서 발췌

이 토성은 당성, 청명산성에서 그 내부가 환히 조망되며, 청명산에 가려 남양만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신라점령이후 청명산성과 함께 당성의 보조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명 성안성으로 불리우는 것도 이러한 까닭인 듯하다. 이 성지는 서신방면의 상안리 해변에서 -백곡리=청원리(성목쟁이)-남양리로 향하는 길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성된 것 같다. 〈화성시사Ⅱ-1편 문화재 제7절 성과 성지, p.162〉에서 발췌

토성 안에는 돌본지 오래 된 묘소가 있다. 홍이연 묘소다. 홍이석의 동생이며 홍시주의 다섯째 아드님 이시다. 후손들은 다 어디 갔을까. 후손들이 없다면 누군가는 돌봐주어야 하지 않을까. 기록이 분명한 유



▲ 〈토성 안에 있는 홍이연 묘소〉

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무덤엔 나무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홍이석 묘소와 큰 비교가 된다.

## 7. 백곡리고분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문화유산들은 홍이연의 무덤 뿐만이 아니다. 백곡리 백제고분군도 이대로 두면 개발논리에 그들만의 삶의 역사와 그들만의 독특한 힘을 잃게 된다. 하루 빨리 역사의 현장을 증언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백곡리고분군은 남양반도(南陽半島)의 해안가 가까이 있는 백곡리 행기실마을 뒤의 해발 90m 내외 야산 정상부 능선과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71년도에 마을 주민의 신고로 김원룡이 조사하여 파괴된 무덤 5기를 확인하고, 이 중 1기에서 한성기의 백제토기 4점을 수습 보고하며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시 조사하여 봉분 흔적이 있는 것 12기를 확인하고 6기를 발굴하였는데, 이 중 4기(1·2·5·8호)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12기 중 11기가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남-북으로 분포하여 있으며, 1호분 1기만 서편으로 약간 떨어져 마을의 평지를 잘 굽어볼 수 있는 곳에 축조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인용 encykorea.aks.ac.kr

## 8. 마도면 백곡리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원효의 해골물이야기, 백화등 향기이야기, 백곡리 토성, 고분이야기, 홍이석이야기, 문무자 이옥과 유득공이야기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흔적들이 백곡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허물어지며 허물어지며 겨우 살아내고 있다.

백곡리에 인접한 해문리 역시 통일신라시대 중국과 해상무역이 활발한 관문이었다. 해문포구 송대에 서 송나라 사신들을 맞이하여 한양으로 가던 길목이기도 하다. 송고승전 의상편에도 해문당주계란 말이 나온다.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당성으로 오다가 길목인 해문리를 지나 하룻밤 잠을 잤던 곳이 바로 백곡리고분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사는 마을을 보다 훌륭하게, 보다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게 하는 기량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하는 <창조도시>의 작가 찰스 랜드리의 말은 우리가 백곡리를 하루라도 빨리 돌보아야함을 절실하게 한다.

“문화는 어떤 장소가 고유하고 특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련의 자원이다. 과거의 자원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오늘의 고전은 어제의 혁신이다.”

- 찰스 랜드리 -

## 영상수필

- 황금모(사진작가, 수필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국화도, 그리고 토끼섬



# 李香枝 (Lee Hyang Ji)



## Life - 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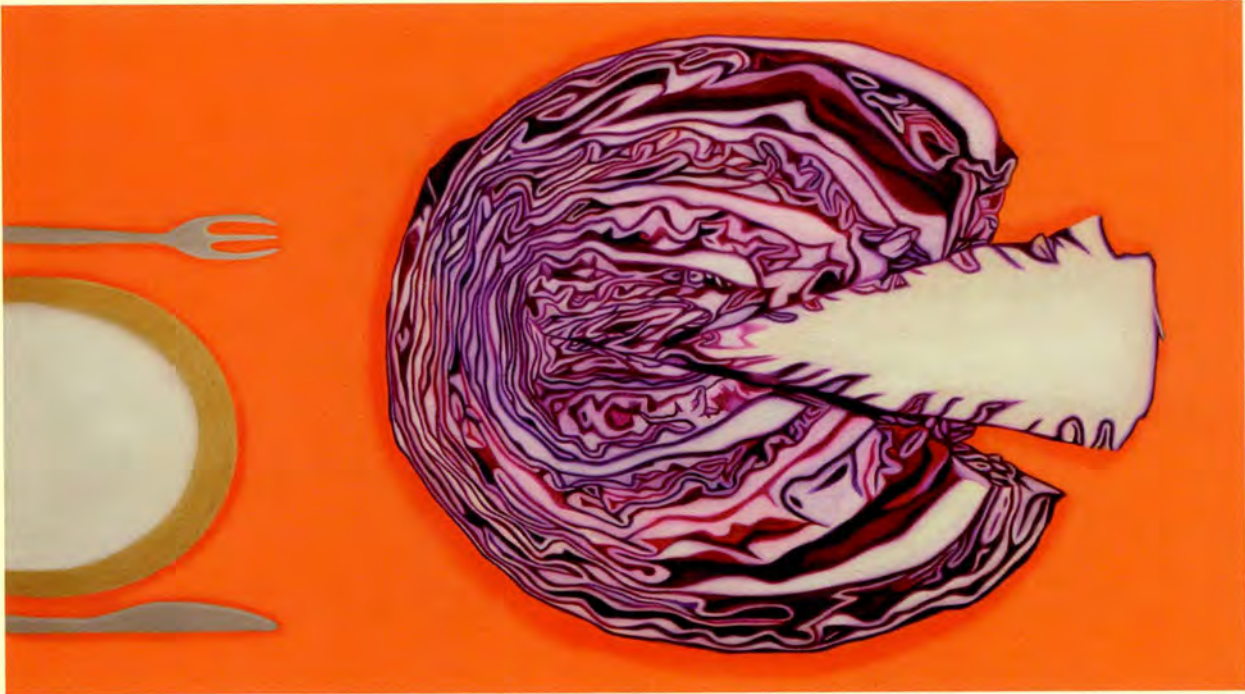
Life 속에 if 가 있는 이유는 삶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이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바라본다는 것, 물체 그대로 보는 것 뿐 아니라 과거에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보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들은 같은 시공간 속에서도 각자 다른 것을 보고 있다.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제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간의 양배추 작업은 나에게 보이는 그대로의 느낌에 대해서 재현하였다면, 이번 작업들은 나의 공간속에서 조금 더 그 곳 세상을 들여다보았고, 숨겨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보았다.

쓸 것 보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이 화가의 길이로 드러내면서도 감추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림이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느낀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금씩 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고뇌와 나태, 조급함과 절망의 반복 속에서 내 능력을 그림에 담아내고 내 그림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분명 힘들다. 그렇지만 늘 나를 겸손하게 하고 행복함과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도 같은 일이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불행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고흐의 표현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야겠다.



2016~2009 11회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화성시 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발안고객지원센터 독일 등)

독일 쾰른 홍콩 뉴욕 대구 서울 오픈아트페어  
서울 아트쇼 아트페어

단체전 및 초대전  
2017~2007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100여회



現)

화성시문화재단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서울미술협회 정회원  
경기미술협회 정회원  
한국미술협회 화성지부 정회원

이 향 지 : C.P 010-9289-3555

E-mail : myartro@naver.com

# 외롭고 불우한 선비의 시작(詩作)을 통한 자기극복

— 즐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의 고독한 시 세계 —

이 경 렬 (시인,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경세에 뜻은 있으나 신체는 불구

즐수재가 지은 500여편의 시(5언 절구, 율시, 7언 절구, 율시, 등)에는 자신의 신병(身病)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온다. '병이 있으니 늘 적막하여' '병 앓은 지 오래니 세속 일이 사라져', '늙은 데다 병든 지도 오래니' 와 같은 표현들이다.

그렇다. 즐수재는 자신을 가장 구속했던 것이 자신의 병이었고 불구라는 콤플렉스가 평생을 불우하게 만들었으며,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늘 '골방 선비' 처럼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즐수재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특히 낙마로 인해 팔이 부러질 정도로 다치고 나서부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의 병이 결정적으로 깊어진 것은 20세 때인데, 조수삼의 『송남잡지』에는 이 병이 곱사등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아마도 낙마와 관계가 있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20대 남성들에게 잘 발병하는 강직성 척추염 같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더구나 그의 편지를 보면 그는 나이 들어 위비(중풍)를 앓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는 병 때문에 3백 년 동안 대대로 녹을 받은 명문 집안의 후손이면서도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유평의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이상의 인용은 문화의 뜰 2016년 겨울 호 즐수재 소개글에서 재인용함)

병은 즐수재가 벼슬을 하여 세상에 나아가거나 여행이나 친구와의 교류도 상대방에서 행동해야 하는 피동성을 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집안이 그의 행동 반경이었고 그가 만나는 사물은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물, 즉 주변의 산천, 꽃, 나무,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병과 불구의 몸은 그를 사회적 소외, 격리의 심리에 의해서 사물과 세상에 대해 배타적, 대립적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 졸수재집

조성기의 문집으로 졸수재의 장남인 正禮가 1710년 경상도 봉화현감으로 재직 중일 때 간행하였다. 12권 6책. 목판본. 태백산 각화사(覺華寺)에 보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권1·2에 오언고시 14수, 칠언고시 3수, 오언절구 22수, 칠언절구 145수, 오언율시 100수, 오언배율 1수, 칠언율시 215수, 권3~10에 서(書) 92편, 권11에 잡저로서 변(辨) 1편, 설(說) 1편, 행장 2편, 제문 3편, 논 2편, 유문(論文) 1편, 권12에 부록으로 저자 조성기에 대한 제문과 만사·행장·지명(誌銘)·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시는 평소 교분이 두터웠던 임영(林泳)·김창흡(金昌翕)·유성운(柳成運) 등과 화답한 시가 많고, 서(書)는 임영과 문답한 서찰이 63편이나 되는데, 학문과 치도(治道)·입언(立言) 등을 논하고 있다. 학문이란 분발로 시작하여 조화로움으로 끝맺고 한결같이 사색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나라를 다스림에는 질(質)을 위주로 하여 처사(處事)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일찍부터 과업(科業)을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문집은 주로 학문의 이론을 집약시켜 놓은 글로 채워져 있다. 특히, 서(書)는 모두 시론과 학설을 담고 있어서 학자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규장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4년에 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에서 저자의 소설인 <창선감의록 彰善感義錄>과 함께 해제를 실

어 영인, 간행하였다.(필자는 권1,2에 실린 고시, 절구, 율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시작(詩作), 자기 극복의 방편

졸수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위로받고 자위할 수 있는 일은 독서와 사색이었으며, 그로인해 학문적 깊이를 쌓게 되고 그 깊이에 따른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자기 세계의 구축은 아집이나 독선의 여지를 남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인지 졸수재는 교류하는 친구가 매우 적었고 오랫동안 교류한 친구는 더욱이 없었다.

그렇수록 그는 자기 세계에 집착하고 그 세계에서 유희를 시작(詩作)이라는 행위에서 탈출구를 찾았으리라. 당시의 선비들이 즐기던 지적 유희, 또는 도가적(道家的) 초월 의식, 무위자연적 인생관은 졸수재도 예외가 아님을 그의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그가 여러 형식의 시(오언 율시나 절구, 또는 칠언 율시나 절구, 그리고 지인과 오고간 화답의 글)에서 추구한 것은, 학문의 깊이에 대한 논의나 그의 학문적 주장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그의 시에 나타난 인간적 서정성에 주목하였다.

졸수재는 그의 학문적 능력이나 가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직시할 때, 단지 자신의 신체적 불구와 병으로 인해 막혀있는 장애요소를 시작(詩作)을 통해서 극복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것도 누구와의 교류가 아닌 오로지 '홀로'라는 자의식에 갇혀서.

세상 만물은 어둠 속에 묻히고  
작은 등불만 저 홀로 밝구나  
쓸쓸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  
앉거나 눕거나 이 한 몸 가벼웁구나

〈獨坐〉

술이 있으나 누구와 마시나  
뜨락의 꽃만 미소로 맞이하누나  
나무 위 몇 가닥 새소리만  
나의 한정(閑情) 아는 듯

〈春日〉

봄이 와도 깊은 산중엔 아무 일 없어  
스님은 종일토록 연화경만 암송하네  
누가 알랴, 세상 밖 청한(淸閑)의 즐거움을 얻으면  
만호 녹을 받는 재상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을

〈山僧〉

줄수재는 홀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한 채 “앉거나  
눕거나 이 한 몸 가벼웁구나(坐臥一身輕)”라고 자족  
한다. “새 몇 마리만 나의 한정을 아는 듯(如識此閑  
情)”하다며 은근히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게다가 “누가 알랴, 세상 밖 청한의 즐거움  
(誰知世外淸閑樂)을 얻으면”이라고 말하며 속세의 떠  
난 여유로운 자족의 생활을 노래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줄수재의 마음은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되뇌이  
는 것만 같다. 왜냐하면 “쓸쓸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  
라고 전제하였고(獨坐), “몇 가닥 새소리만”이라고 한  
정하더니, “연화경만을 암송하는” 스님을 빗대어 스  
스로를 위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정(閑情)과 청한(淸閑)의 경지를 줄수  
재는 스스로 느끼며 즐기고 있음을 약간의 쓸쓸한  
상태에서 이해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병이 있으니 늘 적막하여  
함께 노닐 이가 없구나  
가을 바람에 기러기는 벌써 떠나가는데  
노란 국화는 아직 남은 가을을 아끼네(이하 생략)  
〈暮秋〉

라고 말하며, 다 떠나가고 나는 병들었지만 이  
가을이(세월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상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탄을 한다.

가난하고 병든 나그네 있어  
나이 50이 되도록 소리 높여 노래만 부르네  
——(중략)——

이렇게 허연 머리털만 자꾸 늘어가는구나  
성남에서 종일토록 사립문을 닫고 있으니  
어느 누가 문자를 물으러 들릴 것인가

〈放言〉

이제는 사람이 그림고 사람들과 반감게 어우러지  
고 싶은 솔직한 인간적 소박함을 드러낸다.

10년을 궁벽한 마을에 살며 병치레하였지만  
방안에서도 세상의 번거로움을 멀리 벗어났다오  
——(중략)——

편지나 올까 하다가 발짝 소리 들림이 너무 기뻐서

어느 날 술상 앞에 두고 반가이 마주 앉아  
떠들썩하게 고금을 논하고 시를 읊을 수 있을까  
〈和貞伯〉

정백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답신이다. '방안에서도 세상의 번거로움을 벗어날' 정도였지만, 여전히 그리운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정이다. 졸수재는 이를 감추려 하지만 감출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고 말하는 표현이다. 거의 평생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졸수재는 밖의 세계가 곧 친구들과의 교류이고 그 친구가 곧 세상 밖이기도 한 것이다. 그 절심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벗들이 찾아와 함께 어우러져 즐길 때는 어떠한가.

가을도 어느덧 다 지나가  
뜨락에는 낙엽 날리는 소리  
주인은 가난과 병에 삶이 고달픈데  
벗들은 잊지 않고 찾아주는구나  
국화는 눈에 가득 만개하였고  
미주는 술통에 찰랑거리는데  
이 시절 풍경에 취해  
백 번이나 꽃 주위를 둘러본다  
흥에 따라 시를 주고 받으며  
맑은 말을 다투어 토해낸다  
이 때의 흥취를 가지고  
꽃에게 물어보나 대답이 없다  
〈菊花會〉

졸수재의 시는 전체적으로 약간은 음울하고 슬픈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는 그의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좌절의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수재도 한 사람이라는 작은 존재이다. 그가 치열하게 존재의 손짓으로 시를 쓰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함께 즐기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의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17세기의 한 시대를 건너며 아파하고 외로워했던 졸수재, 자신의 재능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펼칠 수 없었던 불우함, 그의 탈출구는 문학(시)이었다. 자신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를 통해서였다.

문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심성의 그릇이다.

#### 〈참고 사항〉

- 상채된 글은 이승수가 쓴 졸수재 전집(『拙修齋集 1·천년 뒤 지기를 기다리다』도서출판 박이정, 2001년.)에서 번역한 시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번역문에서 필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수정이 있음.
- 졸수재의 『창선감의록』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 절구와 율시를 대상으로 한 문학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임을 밝히며 차후의 과제임을 제시함.

## 그리운 고향의 추억

류 덕 희 (경동제약 회장)



유년시절의 어느 날,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함께 뽕박질을 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본다. 비가 오는 날에는 발이 쑥쑥 빠지고 맑게 갠 날에는 사방팔방 흙먼지 휘날리며 산과 들이며 바다로 뛰어다니던 그 시절, 그 모든 기억은 어린 날 고향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내 고향 화성은 산과 바다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참으로 멋진 지역이다. 워낙 면적이 드넓었기 때문에 뽕뽕이 쪼개지는 과정을 여러 번 겪었던 화성은 원래 수원군이었는데, 수원읍이 다시 수원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분리된 화성군은 다시 오산시, 의왕시, 안산시로 분리되어 나가고, 나머지가 화성시가 되어 각각 동탄 신도시, 봉담 신도시, 향남 신도시, 남양 신도시, 조암 신도시, 비봉 신도시 등으로 나뉘어져 발전되고 있다.

어린 시절만 해도 오지 마을에 불과했던 화성은 차

편이 별로 없었던 것은 물론, 훗날 결혼 후에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고향까지 가려면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했다. 텅텅거리는 시골 길을 달리다 보면 남자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극심한 멀미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곤 했으며,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도시화 되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고향 땅을 바라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내가 태어난 화성군 양감면 요당리는 전주 류(柳)씨 집성촌으로 4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코흘리개 시절의 나는 가을날 밤 철이 되면 집 근처 산으로 달려가 밤 까먹기에 한창 몰두했던 것 같다. 밤을 까서 속껍질까지 이로 싹싹 긁어 벗겨먹으면 치아가 온통 까맣게 변하곤 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재밌던지 친구들과 서로의 모습을 보며 킁킁 놀려대다가, 이내 냇가로 한달음에 달려가 밤

껍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를 썼다. 맑은 개울물로 입안을 헹구고 고운 모래로 이를 깨끗하게 닦아내어 다시 깨끗해진 모습으로 신나게 놀다가 또 다시 밤을 까먹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변변한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조금 긴 막대와 작은 나뭇가지로 하는 '자치기'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기에 마음만은 풍족했던 어린 날들이었다.

일제강점기였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코흘리개들까지 연합군 비행기의 공습에 대비해서 반공대피 훈련을 받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 5학년 학생이 당번을 서서 B-29비행기가 하늘 높이 뜨면 사이렌을 울려, 그 소리를 듣고 학교 운동장 담장 나무들 밑에 있는 방공호에 들어가 대피하곤 했다. 해방 후 6

학년 때에는 제식 훈련을 열심히 받기도 했고, 산에서 벌목한 소나무를 하천을 통해 이동하는데 동원되어 힘들게 옮겼던 기억도 생생하다.

한편 그 당시에는 서운복, 최윤철, 함기용 등 지금은 마라톤 영웅이라 불리는 뛰어난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도 마라톤 붐이 일었었다. 그 영향으로 거의 매일 5,6학년 남학생들을 불러 모아 집동네에서 학교까지 2km가 넘는 길을 함께 신나게 달리며 등학교하던 기억도 고향마을 곳곳에 서린 잊지 못할 추억이다.

중학교 시절, 나는 서울에 있는 광희중학교에 입학 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다. 전쟁이 시작되자 당연히 수업은 중단



1948년 할머니 회갑 후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찍은 사진. 맨 앞쪽 우측에서 다섯 번째가 류덕희 회장

되었고,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 역시 화성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고향까지는 70km정도, 무려 170리나 되는 길을 꼬박 이틀을 걸러 걸어갔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폭격으로 한강 다리가 절단되고 수많은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다. 또다시 건다보면 불에 탄 채로 길에 널려 있는 차들과 우리 군인의 시신들이 논바닥에 엎어져 있는 참혹한 모습도 목격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참담했던 전쟁의 기억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렇게 지친 걸음 끝에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가 살아 돌아온 것에 놀라움과 반가움의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맞아주었다.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1.4 후퇴 때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고향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물려온 피난민들로 방마다 가득 가득 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마루며 헛간에까지 어디서나 잠을 청했다. 하루 이틀 신세를 지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몇몇 집은 9.28 수복 이후 환도할 때까지 내내 함께 머무르기도 했다. 특히나 '하숙생'을 부른 그 유명한 가수 최희준씨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서 얼마 동안 묵어갔으며, 국립보건원장을 지냈던 이강추 회장도 9.28 수복 때까지 우리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이처럼 집안 곳곳에 피난민들이 가득 차 있었던 모습 또한 고향집을 생각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의 하나다.

당시 나는 현재의 서울대 수목원 옆, 수원에 임시로 세워진 서울 피난 수원종합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나갔다. 처음에는 하숙을 하다가

외사촌들과 불기운이 없는 냉방에서 자취를 하며 약 8km, 20리가 넘는 길을 매일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고향인 요당마을로 돌아가는 주말이면 길은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수원에서 발안까지는 그래도 군용트럭이나마 얻어 탈 수 있었으나 발안에서 양감면 고향집까지는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쟁 중에 작은 시골마을까지 교통편이 마련됐을 리가 없었다. 어떤 경우는 겨우 차편을 얻어 타고 밤중이나 발안에 도착하면, 20리가 넘는 밤길을 홀로 뛰어서 간 적도 여러 차례였다.

전쟁 중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원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면, 우리가 공부하던 가교사 건물 바로 위로 비행기가 오가서 그 엄청난 굉음에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섬집아기', '어머니 마음' 등 주옥같은 노래들을 남긴 故이흥렬 작곡가가 그 당시 우리의 음악선생님이었는데, 비행기 소음에 수업이 방해될 때면 "이 소리를 피아노 반주 삼아 노래하자"며 음악 수업을 진행하곤 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며 결국 피난처에서 중학교 수료장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수원의 피난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서야 서울로 환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시절 고향에서 겪었던 일들은 세상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도록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시절의 경험들 덕에 웬만한 일에는 겁을 내지 않는 담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훗날 사회인으로서 성장발전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된 것은 물론이다.

어린 시절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시골의



중학교 졸업사진. 맨 앞줄 우측에서 여섯 번째가 류덕희 회장

풍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시절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르신은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께서는 음식을 넉넉하게 장만하여 가족은 물론 이웃들에게 먹이고 싸주는 걸 좋아하셨다. 집안에 제사가 있거나 생일이 있거나 한 날이면 음식을 많이 장만해 마을 어른들을 대접하고, 이웃을 불러 모아 음식을 나눴다. 지금은 사라진 '보릿고개'가 연례행사로 찾아들던 때였으므로, 봄이 닥치면 끼니를 잇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항상 도우려 하셨다. 한마을에 함께 모여 사는 이상 끼니를 거르는 집이 있으면 곧 내 집 식구가 굶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분이였다. 그러한 할머니의 영향으로 나 역시 이기적이기 보다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한 마음이 지금까지의 내 삶 속에 녹아서 어려운 이

웃을 외면하지 않고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과 지혜가 생겨난 것 같다.

무엇하나 부족하지 않은 요즘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살기가 편해졌다. 도로는 말끔히 포장되어 있고 몇 년 사이 모든 것이 집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살기 '편해진' 지금이 반드시 살기 '좋아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린 시절이지만, 고향을 떠올리면 그 힘들었던 기억마저 싫지만은 않게 다가온다. 그 이유는 아마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이웃과의 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웃에 관심이 없고 삭막하기만 한 요즘을 생각해 보면 고향에서의 모든 기억은 너무나 정겹고 포근한, 보석과도 같은 추억거리다.



## 원어민교사의 하루

글: dini turner

오랜만에 얼굴에 닿는 아침의 뜨거운 햇살은 기분 업.

4.15 제암, 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에 몇 몇 원어민 선생님들과 참석 했다.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의 평화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언어는 이해가 안 되어도 음악과 시를 들으면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

세계의 모든 나라는 나름대로 슬픔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공유한다. 평화의 도시로 재 태어나는 제암리.

하늘에 날려 보내는 풍선.

화성시 역사의 일면의 현장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이였다.

(영어가 첨부 되었다면 많은 외국인이 또한 역사의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아닐가 생각해 본다.)

추모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제암리 시 골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한국인 대학생 4명이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해리 선생님 옆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영어



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웃고, 떠들고, 다시 시도하는 질문들과 대화. 원어민 쌤과 사진도 찍고...

우리는 물론 만난 적도 없지만,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를 길에서 만나면, 영어 사용할 기회를 잘 활용한다.

해리 선생님은 화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한국의 다른 시에 있는 친구들이 화성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아직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해야겠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신 데이비드 선생님은 이제 화성시 초등학교에서 근무 한지 8-9 년.

한국인 여성과 지난 주 4 월 16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버지니아에서 오신 아빠, 누나와 남편, 형. 한국, 아시아에는 처음 방문.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다고 하신다. 특히 아들이 먼 나라 한국까지 와서 화성시라는 도시에서 인생을 같이할 배필도 만나고 축복이라고, 데이비드 부친께서 말씀하신다.

화성시 현 22 명의 원어민 교사는 주로 소 규모 45 학교에서 근무한다. 특히 소 규모 학교 (제부도 포함) 들이 버스가 잘 다니지 않은, 그리고 버스 시간도 학교 출근하기에 쉽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현 원어민 선생님들이 불편 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의 혜택 보다는 이곳의 학생들의 환경을 이해하여 근무 해주니 고맙게 생각한다.

학생들은 시대의 움직임에 적응하며 변화한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도 학생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추어 수업 기술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 화성시 특히 원어민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환경에 맞는 기술과 티칭 능력도 연구하고 개발 하여야 만 한다.

티칭은 대학 전공과 자격증 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화성시 원어민 교사는 년 10 번 이상, 토요일과 일요일, 한양대학, 숙명여대에서 하는 정기적인 KOTESOL, TESOL, 그리고 서울, 수원, 지방에서 하는 수업 연구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하는 공개 협력수업에 참석하고 수업 토론을 하므로서 서로 원어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협조 한다.

원어민 선생님들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

낮에 있는 한국어 수업 참석이 힘들고, 문화 체험 또한 평일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많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종 숙 (소설가)

천지가 꽃소식이다. 매화와 동백이, 산수유와 벚꽃이 만발했다. 꽃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법이니 꽃 피는 것은 기쁨이고 보람이다.

지난해 말부터 광장에서 시작된 외침은 태풍 같았다. 온갖 부정과 과실로 국정을 농단한 무리와 대통령을 구속했고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던 세월 호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물으로 올라왔다. 참담했던 시간을 함께 싸우고 견딘 덕분에 새날이 조금 가까워진 듯하다. 그간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완전하게 보상 받을 수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시

작점에 섰다는 것을 위안 삼는다.

레밍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설치류의 한 종이다. 짧은 다리와 부드러운 털을 가진 이 동물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먹이를 찾아 집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그네쥐라고도 부른다. 레밍에게는 '집단지살'이라는 특이한 습성이 있다. 이는 자기장 이상에 의한 현상이라고도 하고 개체증가에 의한 먹이 부족과 눈이 나쁜 레밍이 바다를 작은 강으로 착각해서 뛰어든다는 웃지 못할 설도 있다. 그 외에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체 수가 증가하여 이동하는 레밍의 유전자지도가 변화한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자살한다.'고 주장한다. 지각변동으로 인해 대륙이 갈라지며 과거에는 없던 절벽과 바다가 만들어졌음에도 레밍의 초기유전자지도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이다.

조직변화이론을 연구한 데이비드 허친스가 쓴 '레밍 딜레마'라는 책이 있다. 책에서 나그네쥐들은 해마다 점프 대축제를 열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문제는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뛰어내린 다음에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무엇이 그곳에 있어 뛰어내리는지 레밍 무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하나, 주인공 에미는 '왜'라는 질문을 한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뛰어 내리는가.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다가왔다. 호기심에 싸인 에미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대신 새총 모양의 고무줄을 몸에 달고 절벽 반대편으로 날아간다. 그곳에서 에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죽음이다. 절벽 아래 떨어져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간 친구들의 죽음.

언론은 지난 몇 달간 광장에서 벌어졌던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을 '세대 간 갈등'이라는 말로 기록했다. 그 말은 어느새 가족을, 이웃을, 세대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부추겼다. 아버지와 자녀, 노인

과 젊은이를 너무도 쉽게 갈라서고 등 돌리게 하였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만든다. 지난겨울과 봄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내며 양극단에서 아슬아슬하게 대치했다. 상대방의 말에 귀 막고 내 목소리만 들으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때 문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광고가 있었다. 그 광고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도 레밍 딜레마였다. 과연 조건 없는 무한이해와 수용은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무리 지어 행동하는 집단에는 맹목성이 있어 앞선 누군가를 추종하게 한다. 추종은 대상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본래의 모습에 굴절과 왜곡을 가해 사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혼동하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편집하기도 한다. 편집 완료된 상태에서 집단의 힘은 강력하다.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절대적 지지자를 양산한다. 이것이 이상화의 과정이다. 본질을 변질시켜 원하는 대로만 보고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고찰 없는 신뢰는 이상화와 맹목적 추종을 가져온다.

'장미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대선후보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양산되고 그 사실여부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벌써 상대에 대한 막말과 음해가 난무한다.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다

가 생각을 바꾼다. 인제 나도 철든 어른 노릇을 하고 싶다. 칸칸하게 묻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싶다. 아직 내 마음속에 진화하지 못한 유전자가 남아있다면 뻗속까지 새로운 유전자지도를 그리고도 싶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레밍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다.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사적인 정이 출발점이 아니었다. 사소한 은혜 갚음으로 설부른 연민이나 동정을 앞세운다면 변혁의 새 시대는 결코 없을 것이다. 세상은 한목소리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다양한 빛깔과 음성, 높낮이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좀 더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것이 없다. 환경이 변하면 그 속에 사는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무지를 이기는 지혜는 경청에서 비롯한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는 노력이 보태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꽃피는 봄날은 더 일찍 올 것이다.

한식이 지났고 머지않아 가정의 달 5월이다.

전에 없는 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월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른들을 찾아볼 좋은 시절이다. 어른에게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그분들이 흔들었던 태극기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70을 넘긴 어른들은 냉혹했던 과거의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족상잔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온몸으로 아픔을 이겨낸 분들이다.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식 잘 먹이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런 분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는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어졌던 마음을 돌리고 존경과 사랑의 미소를 확인하는 일이다. 어른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잡은 아이들이 산과 들로 나가 나무와 풀과 꽃 이름을 익히며 쏟아지는 햇살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평화와 사랑과 존경이 당신들 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 정조의 야망, 화성을 다시 본다

공 화 순 (시인, 화성문인협회 회원)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 탄핵과 세월호 인양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 나라를 흔들어놓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문제는 대통령의 불법과 전횡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민심을 흩어놓고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비통에 빠뜨리게 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현 정권이 오랫동안 민중을 흔들어놓은 사건은 드물 것이다.

그만큼 세월호 사건의 충격은 크고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됐다. 이런 과정에서 수원의 화성을 거닐며 정조대왕의 리더십을 생각하게 된다. 미래를 향해 열린 사고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정조의 남다른 정치이념을 짚어 화성에 대한 기획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혜경궁홍씨에 대한 지극한 효로 부모를 섬긴 역대의 군왕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8일간의 능행차 가운데 정조의 남다른 정치이념과 이상 국가 실현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게 된다. 정조는 11살의 어린 나이로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노론이 득세한 가운데 사도세자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아들을 잃고 나서야 영조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어린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효장세자(영조의 맏아들)에게 입적시킨다. 역적의 아들로 후대를 이을 수 없음도 알아냈지만, 호시탐탐 노론의 세력이 정조를 노리고 있음을 아는 까닭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세자책봉에 이어 왕이 되고 나서 까지도 7번이나 죽임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정조는 노론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는다.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표방한 한마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의 말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단호한 이 한마디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자 함이며 노론을 향한, 강력한 일격이기도 했다. 그 자리에 조아리고 있던 신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왕이 된 정조는 우선 사도세자의 위상을 찾는 일에 열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묘지를 양주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일로 그 명분을 연다. 물론 노론의 반대를 꺾고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정조는 많은 독서량으로 실학에 눈을 떴으며 풍수이론에도 능했다. 왕위에 오르자 소외된 남인을 등용하고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이 신봉하는 서학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서얼들까지 능력대로 발탁하여 인재등용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차별을 없애고 실용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화성을 기획한 정조는 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에게 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성을 쌓는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화성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사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자주 범람하여 골치를 썩던 진목천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만석거로 설치하고 국영농장인 대유돈을 조성한다. 그리고 노론이 장악한 5군영에 맞서 장용영<sup>1)</sup>을 두어 수원에 배치하게 된다. 화성행궁에 당시의 도시업무를 관장하던 관청을 두고 도로를 정비하여 인구 10만 명의 읍성을 축조하는 데 신도시를 기획했다.

수원은 남과 북, 동과 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성 안은

1) 정조 17년에 왕권강화를 위해 설치한 군영.

경제의 중심지로, 성 밖은 자급자족의 농업도시로 키워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 높은 기획도시는 정조의 반대세력에게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노론이 장악하고 있는 5군영에 맞서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대의 원래 목적을 바로잡고 군비를 축소하는 등, 군대를 개혁하여 왕권강화뿐 아니라 부국강화의 목적도 달성한다. 이들 군인은 당시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토지를 나눠주고 수원 화성에 주둔시킨다. 이어 장용영 군사들은 국가 차원에서 훈련시키고 정예화하기에 이른다.

정조의 계획은 참으로 치밀했다. 장용영의 군사 훈련을 <<무예도본통지>>라는 책에서 맨손무예에서부터 마상무예에 이르기까지 그림으로 그 동작을 그리고 기록해서 중앙의 군사훈련까지 표준화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군의 무예를 8일간의 화성능행차 중 세상에 공개한다. 화성의 서장대에서 3,700여 명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정조가 친히 진두지휘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보여주자 반대세력들의 심장은 오그라들었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정조대왕의 정치이념은 상생과 화합에 있으므로 그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화합의 축제로 이끌었다.

물론 정조의 속 계획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사도세자를 어떻게든 왕으로 추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선왕의 유혼을 저버릴 수 없어 한으로 남아 있었고 이후에 갑자년(1804)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들로 하여금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한중록 기록). 조선시대에서 효의 정신은 충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왕의 유혼을 저버리는 일은 불효가 되므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이라면 그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정조는 이미 그런 계획 하에 화성을 기획했고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엔 화성에 내려와 살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정세는 또 다시 노론의 득세로 이어져 천주교가 탄압되고 화성축조에 기여했던 정약용까지 역적의 죄를 씌어 유배를 보내기에 이른다. 정조는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지닌, 시대를 앞서가는 군주였다. 화성을 기획하고 농업의 혁명으로 자급자족의 농업생활을 꿈꾸었으며, 실학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상업을 발전시켜 경제부흥으로 부국강화를 이루고자 했다. 게다가 지극한 효심은 말할 것도 없고 능행차를 통해 백성과 호흡하는 상생과 화합의 도리를 펼치기도 했다. '격쟁'이라 하여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소리를 듣고 1,330건의 문제를 해결했을 정도다.

<<원행음묘 정리의 귀>>에는 능행차에 대한 것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정조의 효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화성 성역의 귀>>를 통해 화성축조에 대한 모든 것을 면밀히 기록해 오늘날까지 화성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읍성과

산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성곽이다. 규모가 작다하여 국보로서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이 성곽에 깃든 정신을 생각해볼 일이다. 모든 것을 실리에 맞게 행하라는 실학정신은 물론, 거중기와 화차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10년의 계획을 3년도 채 안 걸려 완성한 성곽으로 우리 건축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긴 가치 있는 문화재다.

먼저 화성을 둘러보고 용건릉을 찾았다. 평일이라 그런지 인적이 드물다.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 쓸쓸함을 부추긴다. 사도세자는 장조(莊祖)<sup>2)</sup>라는 이름으로 추존되어서인지 평온하게 누워있는 듯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연정이 물씬 묻어나는 연못(연지)을 돌아 건릉으로 발길을 옮겼다. 용릉에 비해 조금은 웅숭그린 듯한 건릉에 오래도록 발길을 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심사인지….

효는 인간의 근본이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도리다. 단지 그 효행에 감동해서가 아니다. 효심에서 출발하였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가

당시의 나라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화성을 기획하고 부국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정비했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난 등 국가적인 여러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이 논란이 되어 탄핵에 이르고 대선을 코앞에 당겨둔, 막막한 현실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민심을 수습하여 기강을 세울 지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독재라는 불명예보다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정권의 대를 이어 부강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란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꺾였다. 박근혜정권은 부국의 이미지에 오히려 독재의 오명만 부각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정조대왕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개혁정신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데, 힘과 지혜를 보태야만 할 때이다.

2) 17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 현릉원으로 이장하고

뒷날 고종은 1899년 장헌세자를 장조로 추존하고, 현릉원을 용릉으로 고쳤다.

향토문화연구소 활동 소식

임철빈(수필가,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4개월에 걸쳐 화성의 산성 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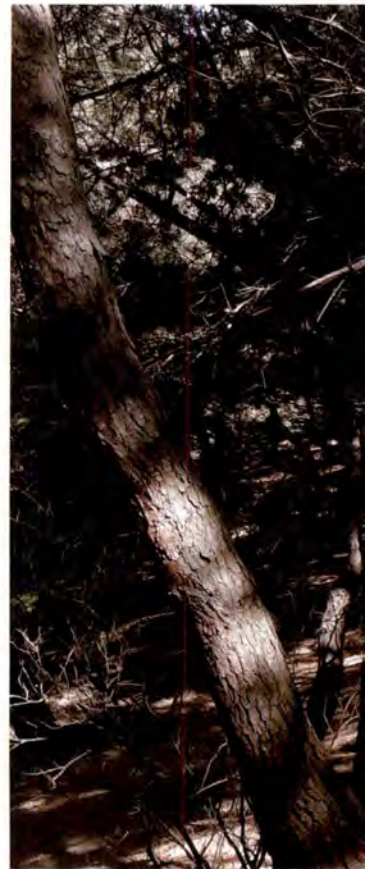
본원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2016년 1월 12일에 소근산성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7일까지,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산성 답사를 완료하였다. 총 11회, 연인원 104명이 답사에 참여하였다.

산성의 소재지, 면적, 둘레, 축성시기, 형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그동안에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망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산성에 오르는 접근로에 대해서도 지도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앞으로 산성 보존과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 산성의 답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답사 일	산성 이름	소재지	참가 인원(명)
2016.01.12.	소근산성	양감면 신왕리 산18일원	11
	길성리성	향남읍 요리 산23-1 일원	9
2016.12.06.	화랑진성	송산면 지화리 산90일원	9
2016.12.13.	운평리성	우정읍 운평리 산119-2일원	8
	한각리성	우정읍 한각리 344 일원	
	창고산성	우정읍 석천리 산 73-1 일원	
2016.12.20.	백곡리성	마도면 백곡리 산 135	8
2017.01.03.	당성	서신면 상안리 산32일원	11
2017.01.10.	사창리성	양감면 사창리 산112-2 일원	11
	태봉산성	정남면 관항리 산28-31 일원	
2017.01.17.	용두리성	서신면 용두리 산 164-7일원	9
	석산성	서신면 백미리 산41일원	
2017.02.28.	서미산성	팔탄면 창곡리 산26-2 일원	9
	오두산성	팔탄면 지월리 산75 일원	
2017.02.21.	삼존리성	송산면 삼존리 산9-1	8
	청원리성	마도면 청원리 228-14일원	
	청명산성	마도면 백곡리 산184-2	
2017.03.07.	남양동토성	남양동 1633-1	10
	신경산성	북양동 산129일원	
	수원고읍성	안녕동 산1 일원	
2017.03.14.	재양현성	비봉면 청요리 산1 일원	10
총 11회 차	21개성		104

함께하다



▲ 무너진 화랑진성의 실태 조사 모습.



▲ 태행산에 올라 재양현성의 유적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며.



▶ 수원 고읍성의 흔적을 면밀히 탐방하고.

## 화성시의 3대 지맥 탐사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정맥, 그 한남정맥이 군포 수리산의 감투봉에서 분기하여 남쪽으로 내려 오다가 화성시에 이르러 다시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화성시 산줄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서봉지맥, 오두지맥, 태행지맥이 그것이다.

본 문화원의 향토문화 연구원들은 3회에 걸쳐 서봉지맥을 완주하였고, 이어 4회에 걸쳐 오두지맥을 완주하였으며, 태행지맥을 4회에 걸쳐 5월 8일 완주하였다.

단순한 종주가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을 탐사하고, 산과 주변 마을의 이름의 유래, 유적, 전설, 주요 산물, 인물, 등 인문학적 요소를 찾고 확인하면서 종주하는 매우 종합적인 종주 방식이다.

- 서봉지맥 종주 과정

구 간	종주일	거리(km)	시간(시:분)	참가인원(명)
1구간 : 수리산 감투봉 - 구봉산 - 42번국도 (수원 당당동)	2017.01.26.	13.5	03:47	1
2구간 : 42번국도 - 칠보산 - 오목동 수영사거리 - 와우교회 - 샘골 교회(협성대) - 태행 지맥 분기점 - 왕림고개	2017.02.18.	15.9	05:41	3
3구간 : 왕림고개 - 태행 분기점 - 노리고개 - 태봉산 - 용구리고개 - 촌고개(67번 도로) - 서봉산 - 관리고개(82번 도로)	2017.02.26.	9.3	06:26	5
4구간 : 관리고개 - 천석산 - 방울산 - 화리현고개 - 사양이고개 - 원고개(306번 도로)	2017.03.05.	12.5	04:47	4
5구간 : 원고개 - 덕지산 - 청북중학교 - 현곡산업단지 - 39번국 도 - 금곡사거리 - 38번 국도 - 장수리 - 39번국도 - 계두봉 - 아산만 방조제	2017.04.06.	22.2	06:12	1

※ 1구간과 5구간은 화성지역이 아니어서 이경렬 위원이 단독 종주함.  
 ※ 구간거리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여러 선행기를 종합하여 독도한 결과임.  
 ※ 구간의 접근거리와 이탈거리는 포함하지 않았음.



1. 서봉지맥에서 자주 만나는 안내표지들. 2. 와우리-협성대 구간은 산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3. 서봉산을 가던 중 향골봉에 다다른 일행. 4. 양석골봉에서.

- 오두지맥 종주 과정

구 간	종주일	거리(km)	시간(시:분)	참가인원(명)
1구간 : 왕림고개 - 삼봉산 - 지내산 - 태행산 두지맥분기점 - 요골고개(기천저수지),	2017.03.11.	11.5	04:52	5
2구간 : 요골고개 - 서낭고개(팔탄 사거리) - 덕천육교 - 오두산 - 화성시 자원화 시설 - 천덕산 - 서근리 육교.	2017.03.18.	10.2	06:41	3
3구간 : 서근리 육교 - 금의산업단지 - 제2 서해 고속도로 육교 - 82번 도로 - 남산 - 장안면사무소.	2017.02.26.	8.3	03:22	5
4구간 : 장안면사무소 - 산호아파트 - 봉화교차로 - 봉화산 - 두레자연고 - 불로산 - 이화교회 - 보금산 - 매항리 부두.	2017.03.05.	7.3	04:47	4

※ 거리에 관계없이 길이 희미한 곳, 숲이 우거진 곳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됨.  
 ※ 구간거리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여러 선행기를 종합하여 독도한 결과임.  
 ※ 왕림고개에서 태행산 분기점까지는 태행지맥임.(약6.9km)



1. 왕림고개에서 태행산 분기점까지 2시간여를 와서, 오두지맥이 시작된다.
2. 오두산에 이르러 지나온 태행산 방향을 본다.
3. 오두지맥의 끝이 잘려있다. 여기는 매항리의 화성방조제 초입.



1



2



3



4

1. 옴티고개. 태행산에서 부터 거대한 채석장으로 변한 마루금을 70분 정도면 도착한다.
2. 서남쪽의 남양방면
3. 당성에 이르러 한 장
4. 태행지맥 완주를 자축하며 종료 지점에서

－ 태행지맥 종주 과정

구 간	종주일	거리(km)	시간(시:분)	참가인원(명)
1구간 : 태행산 - 옴티고개	2017.04.16.	6.9	03:40	5
2구간 : 옴티고개 - 삼부실고개 - 성고개 - 잔다리고개 - 은장고개 (솔티고개)	2017.05.01.	9.2	04:45	3
3구간 : 솔티고개 - 성목재 - 굴고개 - 당성	2017.05.03.	8.1	03:22	6
4구간 : 당성 - 아지미고개 - 지화리 입구 삼거리 - 이봉산 - 승학산 - 와룡산 - 전곡교 앞	2017.05.08.	6.5	04:57	6

※ 태행지맥 분기점에서 오두지맥 분기봉은 겹치는 종주길이라 태행산에서 출발함.  
 ※ 태행지맥 분기점 - 왕림고개 - 삼봉산 - 오두지맥분기봉(약 6.9km).

## 문화원 활동소식

### ● 제54차 정기총회 개최

2월 16일(목) 화성문화원 제54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 보선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신임 임원으로 김신영, 김미자, 박연숙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고정석 문화원장은 일부 증액된 부분, 신규 지원받게 된 사업도 있으나 삭감된 사업이나 종료된 사업도 있다며 금년 책정된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 ● 전통민속전승행사

기안말용줄다리기가 2월 11일(토) 기안1통 마을 일원에서 있었습니다.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안말용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전후로 매년 행해지고 있으며, 마을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유대를 과시하고 일년 동안 마을의 안녕과 대풍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암줄과 수줄로 나뉘어 세 판의 줄다리를 하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두레놀이, 지신밟기, 줄고사,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와 함께 문화원과 마을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가 후손들에게도 전승되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 문화유산을 찾아서

2월 23일(목) 문화유산을 찾아서 101차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연천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시등 여러 문제가 겹쳐 급하게 답사지를 변경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용산 전쟁박물관,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 영화박물관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3월 23일(목) 문화유산을 찾아서 102차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달에 계획했으나 변경되었던 연천으로 다녀왔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선사유적지, 고인돌공원, 송의전, 경순왕릉을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또한 103차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4월 27일(목) 가평 문화유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중종대왕태봉, 이방실 장군묘, 조종암대통묘, 현등사를 답사하였습니다.





### ● 제98주년 3.1절 기념식

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3월 1일 10:00시에 화성 유엔아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삼일절 노래제창 및 만세삼창을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성시가 어느 곳 보다 격렬한 3.1 만세운동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행사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 장안리 도당굿

3월 9일 장안면 장안리에서 장안리 도당굿이 열렸습니다. 장안리 도당굿은 당주의 선출방식과 당의

구성, 굿의 제차 등에 있어 경기 남부지역 마을굿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화행사였으나 현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화성문화원은 장안리 도당굿이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진 - 출처 : 네이버블로그 '무당신문'



2017년 장안리 도당굿

### ● 금산사 춘향제

3월 11일 11시에 금산사 춘향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팔탄면 창곡리 산 14번지에 위치한 금산사는 신라의 3국 통일의 위훈을 세운 김유신장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하여 김해 김씨 문중에서 세운 사우(祠宇)입니다. 신라의 유학진흥과 국학발전에 공헌한 설총과 최치원을 배향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가을로 길일(吉日)을 택하여 일년에 두 차례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금산사 제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안곡서원 춘향제

4월 1일 11시에 안곡서원 춘향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신면 상안리에 위치한 안곡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으로 박세희, 박세훈, 홍섬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음력 3월 5일에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안곡서원은 1616년 현종7년에 건립되어 1721년 경종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었으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76년 유림에 의해 중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성료

화성시와 화성문화원은 2017년 4월 15일 10:00에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희생자 추모제>를 진



행하였습니다.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한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일제가 화성지역 3·1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고주리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일본의 잔학한 통치와 화성시의 강한 독립의지가 전 세계에 알려져,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운동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불붙인 역사적 사건입니다.이번 추모제는 “평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기존에 진행하던 추모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먼저 제암, 고주리와 같은 학살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 중서부마을 오라두르 쉬르 글란과 필리핀 마닐라시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하여 시와 평화연대를 맺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평화도시 선언문이 새겨진 평화의 책을 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동시에 외부 행사부스에서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캐리커처가 그려진 에코백과 평화 기원 배지 만들기, 독립운동가가 되어보는 기념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극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많

은 시민들이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8일까지 '한·불·중 학살, 끝나지 않은 역사'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어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의 사진자료와 세계의 학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추모와 평화의 정신을 장기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화성문화원은 앞으로도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화성시 역사문화토크콘서트

2017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화성중학교와 향남고등학교에서 화성시 역사문화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성시 역사문화토크콘서트는 화성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대화형 콘서트 형식으로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JS예술단의 축하공연, 화성시 향토박물관 이정일 학예연구사, 독립기념관 김주

용 선임연구원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의 이해영 연구원의 강의 그리고 자유롭게 학생들과 대화하는 토크콘서트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성중학교와 향남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발안, 향남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와 발표가 진행되어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역사문화토크콘서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올 7월 19일 삼괴고등학교에서의 토크콘서트와 UCC경연대회 등 다양한 후속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tvN 동네의 사생활 화성시 방송 관련 안내

지역 구석구석의 숨은 인문학 이야기를 전하는 tvN 교양 토크 프로그램 '동네의 사생활'에 화성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관련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tvN '동네의 사생활'은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뜻밖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평범한 동네에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는 방송입니다. 이번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를 맞아 관련내용으로 제작된 '동네의 사생활'은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을 중심으로 화성시장 인터뷰 및 공룡알 화석산지, 당성, 용·건릉, 매향리, 궁평항 등을 방문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4월 11일 오후 7:40에 방송되었습니다.



출처 : tvN 동네의 사생활

### ● 화성시 역사문화 학술발표회

4월 22일 13:00시에 롤링힐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가 있었습

니다. 원효대사 탄신 14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 문인협회에서 주관하고 화성시와 사단법인 한국불교 학회에서 후원해주신 학술대회가 화성문화원 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정찬모 소장님과 한국불교문인협회의 김재엽 사무총장님이 행사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주제는 “원효의 오도처와 화성의 당항성 관계 고찰”, “원효의 화회사상과 평화교육”, “원효대사 관련 설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세 가지였고 각각 역사,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주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원효대사의 오도처와 관련하여서는 견당사들이 주로 이용했던 경주에서 당은포로 이어지는 계립령로를 따라 입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직산을 원효의 오도처라 기록한 자료에 대해 무덤에서 오랜 기간 수행하는 것, 무덤이 있던 자리에 사찰을 지은 것 둘 중 어느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화성의 당성 인근이 오도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 경기도 체육대회 성화 채화식 진행

4월 25일 09:00시에 역대최대규모로 펼쳐지는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성화봉송식 집례를 맡아 전통예법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였고 고정석 문화원장, 한진안 이사, 이상점 예절관장, 그리고 강윤구 사무국장 사회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성화는 채인석 화성시장님,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님, 홍보대사 영화배우 염정아씨 등 200여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5일 오전 화성시 송산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서 채화되었습니다. 성화는 26일까지 2일간 화성지역 24개 읍·면·동 순회하여 동탄 센트럴파크 광장에 안치되며 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27일 각 시민 대표로 선정된 6명의 최종 주자들에게 의해 주경기장으로 이동, 점화되어 폐막일인 29일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 ● 다문화부부 전통혼례식

5월 27일(토) 향남읍 발안천 공원에서 제3회 나누리 발안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 예절관(관장 이상점)에서는 축제 식전행사로 다문화가정 장상훈 신랑과 응띠엄 신부의 뜻 깊은 전통혼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는데 향남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안효철 위원장님이 결혼식을 주선해주시고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현주 센터장님께서 신부의 친정어머니 역할을 맡아주셔서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과 친척 및 친구들, 그리고 축제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뜻 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 앞에서 혼인을 서약하신 만큼 화성시민으로 하나 되어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전통혼례식을 계기로 앞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예절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들이 더 많은 전통혼례를 통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 2017 문화학교

강좌명	인원	강의시간	강의장소	비고
가야금(성인/학생)	10	금) 14:00~17:00	2층 예절실	재료비 별도
대금	10	월) 19:00~21:00	1층 강의실	
경기민요	20	수,금) 14:00~16:00	1층 강의실	
민화	15	화) 10:00~12:00	2층 강의실	
수묵산수화	15	화) 13:00~15:00	2층 강의실	
서예 2반	15	목) 10:00~12:00	2층 강의실	
서예 1반	15	월) 10:00~12:00	2층 강의실	
사진반	15	수) 10:00~12:00	다목적실	
한국무용	20	수,금) 10:00~12:00	1층 강의실	
성악뮤지컬	15	수) 10:00~12:00	2층 강의실	
전자오르간	12	화) 13:00~15:00	1층 강의실	
생활인문학	30	수) 13:00~15:00	다목적실	
담채인물화	12	월) 10:00~12:00	2층 강의실	
규방공예	15	화) 14:00~16:00	다목적실	
특강 고전인문학	60	금) 14:00~16:00	다목적실	
특강 한방인문학	60	금) 10:00~12:00	다목적실	
다문화예절학교	-	수시 /예절 및 다도체험		
어린이/청소년예절학교	-	체험비 1,000원		

## 향토 문화 사료를 수집합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소중한 화성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향토문화를 보존·계승하고자 합니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위기의 사료를 수집하여 책으로 발간, 전시하는 등 귀중한 자료로 만들고자 하며 화성시민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그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소장하고 계시는 옛 자료들을 문화원으로 연락주시면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 수집 내용

- 화성의 민속품 (의·식·주 등 생활용품)
- 화성의 모습을 담은 옛 사진 (인물, 풍경, 풍속 등)
- 고문서 (서적, 서찰, 기타 문서, 그림 등)

# 화성문화원은 지역의 문화허브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 1. 화성문화원에서 하는 일**

하나, 지역고유문화를 계발, 보존 및 전승  
둘, 향토사와 문화의 조사·연구·수집  
셋,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넷,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다섯,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여섯,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2. 회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

화성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 3. 회원이 되면**

하나, 정기간행물 『문화의 뜰』과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도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둘,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셋,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넷, 회원과 회원가족은 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유적답사 등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 회원이 되시면 수강료 및 문화유적답사 참가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되는 자격 및 참여방법**

화성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셔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회비: 월 1만원(통장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납입계좌: 농협 170817-51-008268 화성문화원(일시불 납부 시)  
문의전화: 353-6330

※화성문화원은 공익을 위한 특수법인 단체이므로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정산 시 비용 인정 및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뜻있는 기업, 단체 등에서 발전기부금을 내고자 할 때는 기부자가 손금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 문화학교 서예반 강사 이영재 작품